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실업수당 청구건수 1년만에 최대 감소
- Bloomberg: '정리 해고는 기업들의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 금융]

- Bloomberg: 실업 청구건수 감소에 국채는 하락하고 증시는 회복

[미 대선]

- CNBC: 미 대통령 러닝메이트끼리 '중산층 충성 경쟁'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지하철 탑승자, '매우 높은 공기 오염' 경험

[부동산]

- WSJ: 오피스 대출에 이어 아파트 대출도 악화 조짐
- Bloomberg: 미 주택 소유자들, 묶여있는 모기지로 인해 2백억 손실 발생

[오일]

- WSJ: 지난 한 달 동안 브렌트 원유 하락했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기업들, 인플레이션에 의한 '정치적 비판' 직면
- CNN Business: 코스트코, 멤버십 카드 부정 사용자 단속 강화한다
- CNN Business: 델타항공 승객,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태 관련 집단 소송 제기
- Bloomberg: MS, 팔란티어와 협력해 미 국방정보국에 AI 판매 추진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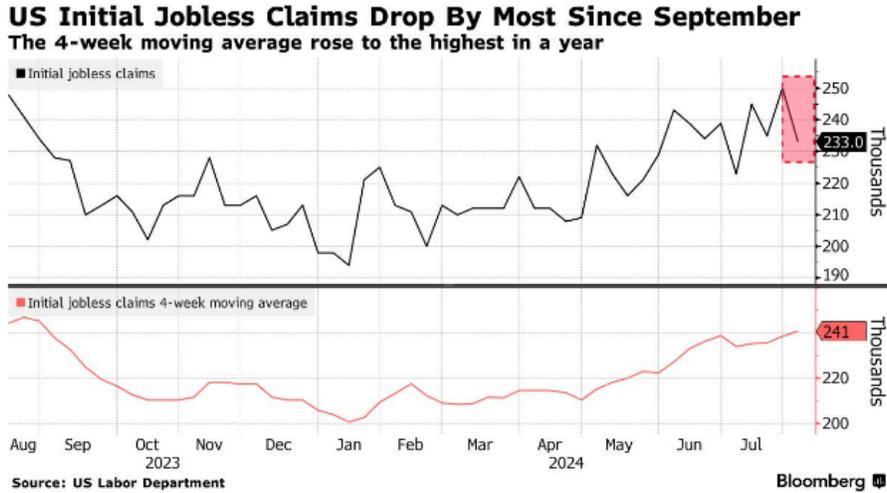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Decline by Most in Nearly a Year **미 실업수당 청구건수 1년만에 최대 감소**

- 지난주 미 실업수당청구 건수가 거의 1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주 실망스런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된 상황에서 노동 시장이 빨리 냉각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일부 잠재웠다.
-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8월 3일 끝나는 주의 신규 실업청구건수가 1만7천건 줄어든 23만3천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수 주 동안 증가 건수가 높았던 미시간, 미주리, 텍사스 주에서 신청건수가 줄어들었다.

- 이같은 청구건수 감소 현상으로 인해 시장은 노동시장이 급하게 악화되기 보다는 팬데믹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주 일자리 악화 및 높은 실업률 발표 전까지만 해도 이같은 판단이 강했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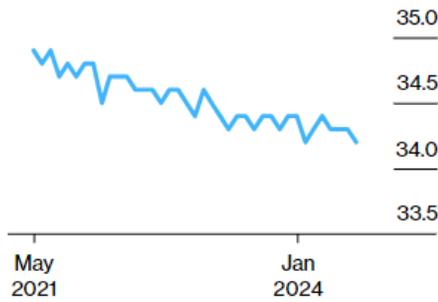
Bloomberg: Layoffs Are a Last Resort Looming for More US Companies
‘정리 해고는 기업들의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다’

-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둔화 상황 가운데 정리해고는 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고용과 근무시간을 줄이고 공석에 있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 20년래 가장 높은 금리와 경제 둔화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정리 해고는 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최근의 관련 자료를 보면 고용주들은 정리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mploy America의 사무총장인 Skanda Amarnath는 “노동 시장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 한편 연준 관리들은 당초 노동시장이 둔화되기를 원했지만 너무 빨리 둔화 되는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 아래 도표는 일자리 관련 진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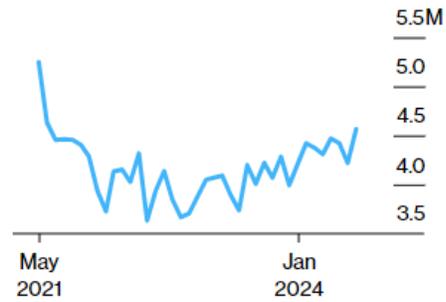
Job Market Warning Signs

Firms have largely avoided layoffs, but labor demand continues to c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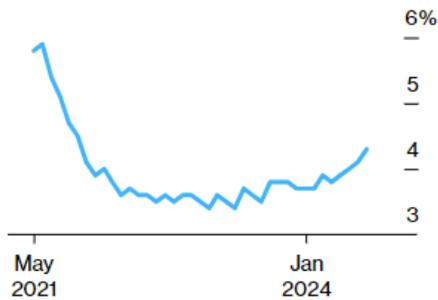
Average weekly h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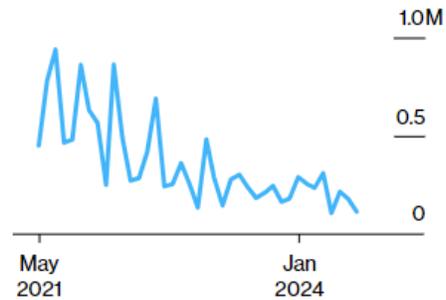
Part time for economic reasons



Unemployment rate



Monthly change in nonfarm payrolls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s Get Relief Rally After Jobless Claims Data: Markets Wrap

실업 청구건수 감소에 국채는 하락하고 증시는 회복

- 최근의 실업청구 건수가 거의 1년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국채는 떨어지고 증시는 안도의 반등을 보이고 있다.
- 오늘 목요일 오전에 S&P 500은 1.69% 회복된 5,287.20 그리고 나스닥은 2.21% 상승한 16,553.67로 거래중이다.
- 국채는 하락했으며, 트레이더들은 올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베팅을 줄였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이달초 시작된 증시의 패닉 현상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라며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Bloomberg 기사

[미 대선]

CNBC: Trump, Harris deploy running mates to wage class warfare over 'what middle America is'**미 대통령 러닝메이트끼리 '중산층 충성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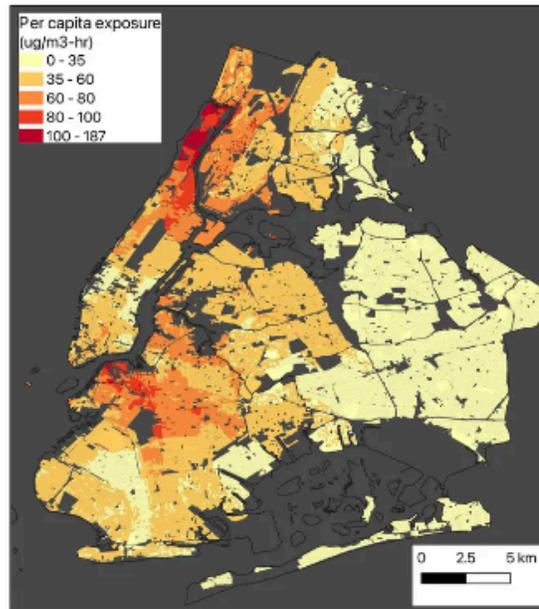
- 민주당 대통령 지명자 해리스의 러닝 메이트인 팀 왈츠 미네소타 주지사는 트럼프와 그의 지명자인 JD 밴스를 엘리트주의로 성장한 사람들이라며 “예일 법대를 졸업한 밴스 러닝메이트는 실리콘 밸리 억만장자들의 지원으로 경력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 이에 대해 트럼프 러닝메이트는 시골 네브라스카에서 출생한 중산층 출신이라며 가난한 집에서 성장하며 열심히 노력해 아메리칸 드림을 스스로 이루었다고 반격했다.
- 이같은 러닝 메이트끼리의 비난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중산층과 더 연결되어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면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다.

CNBC 기사

[뉴욕시]

Bloomberg: NYC Subway Riders See 'Exceptionally High' Air Pollution
뉴욕시 지하철 탑승자, '매우 높은 공기 오염' 경험

- 뉴욕시 지하철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할 수 있지만 공기 오염도는 매우 높다.
- 이른바 PM2.5로 알려진 공기 속의 위험한 미세먼지가 지하철 플랫폼과 지하철안에 '예외가 될 정도로 높은' 오염도라는 것이다.
- 특히 이같은 공기 오염도에 노출이 심한 계층은 특히 저소득층, 흑인, 히스패닉계라고 관련 연구는 밝혔다. 이 연구는 맨해튼의 스탠튼 아일랜드 보로르 제외한 4개 보로 지하철 출근 탑승객 3백10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Mean per capita exposure to PM2.5 at the census block level. Source: PLOS 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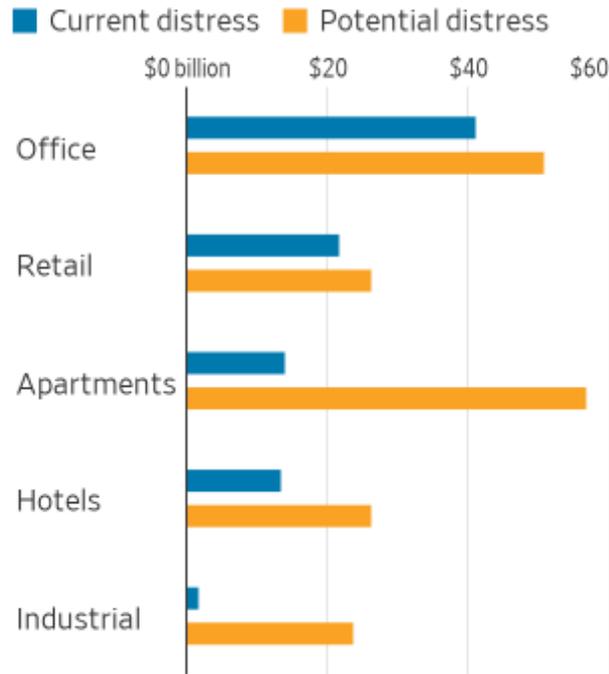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부동산]

WSJ: Office Loans Are Toxic, but Apartment Loans Are in Bad Shape Too 오피스 대출에 이어 아파트 대출도 악화 조짐

- “2025년까지 버티기”는 금리 인하를 원하며 힘겹게 건물을 유지하는 건물주들의 신조가 되었다. 많은 오피스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아파트 대출도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 MSCI의 데이터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으로 400억 달러 이상의 오피스 대출이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부실화된 아파트 대출의 약 3배에 달한다.
- 하지만 향후 부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모기지 대출은 569억 달러로, 오피스 대출의 509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이다. MSCI 리서치의 부사장 알렉시스 말틴은 입주율이 떨어지거나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자 지불에 간신히 충당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월요일 CRED IQ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 동안 아파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한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CRE CLO)의 부실률은 7월에 10.8%에 도달했다. 이는 30일 연체될 대출, 만기 경과된 대출 또는 특수 서비스에 있는 모든 대출을 포함한 수치이다.

Distress by property type



Source: MSCI U.S. Distress Tracker, Q2 2024

WSJ 기사

Bloomberg: Mortgage Lock-Ins Cost US Economy \$20 Billion in One Year 미 주택 소유자들, 묶여있는 모기지료 인해 2백억 손실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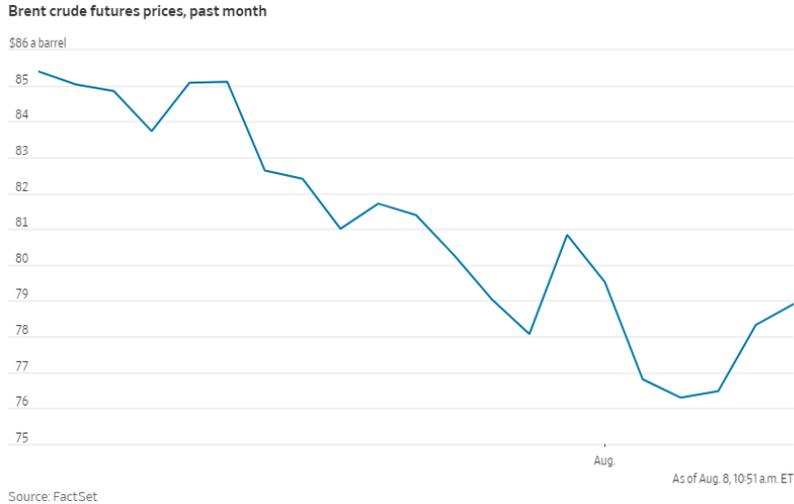
- 수백만명의 미 주택 소유자들이 비싼 모기지를 부담하고 이사하기 보다는 현재 집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 미국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 이달 미경제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모기지율에 묶여있는 록인(Lock-in) 현상으로 발생하는 미국 경제의 비용은 지난 2022년 이래 1년 동안 2백억달러라는 것. 이를 한 가구당 계산해 보면 2백96달러의 비용이다.
- 비싼 모기지 부담이 없었다면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80만명이 이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년전부터 모기지율이 오르면서 이사가는 걸 주춤하게 됐다.

Bloomberg 기사

[오일]

WSJ: Sliding Oil Price Means Relief at the Pump 지난 한 달 동안 브렌트 원유 하락했다

- 미국과 중국, 두 최대 석유 소비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벤치마크 브렌트유 가격이 지난 한 달 동안 약 8% 하락했다. 이번 주 초, 일본 주식과 통화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브렌트 선물 가격은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데이터가 발표 후, 최근 며칠 동안 브렌트유 가격이 일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배럴당 약 78달러로 2024년 최고치보다 14% 낮은 수준이다.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위협하는 등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격 하락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As inflation fury lingers, politicians join customers in pushing companies to cut prices

기업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정치적 비판’ 직면

- 높은 외식 물가와 식료품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로, 식품 체인점과 소비재 기업들이 정치인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 특히, 경합 주에서 승리를 노리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수년간 공화당이 가격 인상을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던 시도에 이은 것이다. 예를 들어,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운영하는 X 계정은 5월 말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맥도날드, 칩필레, 타코벨에서 가격이 오른 인기 패스트푸드 메뉴를 나열한 바 있다.
- 현재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전 대통령은 모두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서로 다른 원인을 지목하고 있다. 해리스는 기업들의 ‘가격 폭리’와 싸우겠다고

말한 반면,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인플레이션 악몽”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 양당이 모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소득 수준, 지역,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식품, 가스, 주거비 등의 비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치적 비판은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거나 높은 가격에 걸맞은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

CNBC 기사

CNN Business: Costco is cracking down on membership moochers 코스트코, 멤버십 카드 부정 사용자 단속 강화한다

- 코스트코가 고객이 매장에 들어가기 전,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비회원을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더 엄격한 정책 시행을 통해 다른 쇼핑객이 매장에 입장하기 전 멤버십 카드를 스캔하도록 요구하는 것.
- 코스트코는 온라인 성명을 통해 “앞으로 몇 달 동안 멤버십 스캔 장치가 매장 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후 모든 회원이 입장 전에 바코드 또는 QR 코드를 사용해 실물 또는 디지털 멤버십 카드를 스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이 없는 멤버십 카드를 소지한 회원의 경우, 코스트코는 유효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쇼핑객이 멤버십 카운터를 방문하여 사진을 찍도록 권장하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Delta passengers sue airline over refund refusals after CrowdStrike meltdown 델타항공 승객,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태 관련 집단 소송 제기

- 7월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대규모 기술 장애로 항공편이 취소된 이후, 델타 항공 승객 일부가 항공사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델타 항공이 대규모 취소 사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승객들에게 환불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환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번 소송은 델타 항공,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7월 19일의 대규모 기술 장애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을 놓고 공개적으로 다투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첫 번째 법적 조치 중 하나이다.
- 소송에서는 “델타 항공 승객들에게 미친 영향은 재앙적이었다”라며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장애를 복구하지 못한 델타 항공의 실패로 인해 승객들은 미국과 전 세계 공항에 발이 묶였고,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Microsoft, Palantir Team Up to Sell AI to US Defense, Intelligence Agencies

MS, 팔란티어와 협력해 미 국방정보국에 AI 판매 추진

-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 Inc.)가 미국 국방정보국에 일급 기밀 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 협력한다. 두 회사는 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 도구를 결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 소프트웨어에는 OpenAI의 GPT-4도 포함된다.
- 이번 계약에 따라 팔란티어는 기밀 용도의 도구를 포함하여 정부 고객을 위한 Microsoft의 Azure 클라우드 서비스와 자사 제품을 통합하고, 이 비밀 클라우드 내부에 Microsoft의 Azure OpenAI 서비스를 활용할 예정이다.
- 두 회사는 목요일 성명을 통해, 이 제품들이 결합되면 미 국방부 직원들이 물류, 계약, 작전 계획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美 10년물 국채 가격 하락에 입찰도 부진...증시에도 영향

'저조한 수요는 국채 랠리 종료 신호'로 해석

이번 주 초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시장 혼란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국채 10년물 입찰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올해 대폭적인 금리인하 전망이 줄어들면서 이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95%로, 6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420억 달러(약 58조 원)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입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수익률이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